

조각목

□ christianlife.nz/archives/10553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언급하셨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에 배치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먼저 지성소에 배치될 증거궤, 성소에 들어가게 될 분향단, 떡상, 촛대, 그리고 성막 뜰에 배치될 번제단을 언급하셨다. 그런데 이 기구들을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왜 조각목으로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기 원하셨을까?

조각목은 가공하기 위해서 많은 손질이 필요하다

조각목은 영어로 'Acacia Wood'이다.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중국에 있는 조각자나무와 비슷해서, 중국어 성경 번역가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조협목'으로 표기했다.

이후에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는데, 이때 참여한 초기 번역가들이 이를 '조각목'이라고 표기해서, 우리에게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란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이해했던 아카시아 나무와 애굽과 아라비아, 이스라엘 남부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많이 다르다.

일단 자라는 토양이 다르다. 광야에서 흔하게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물이 부족하므로 연강수량 50mm 이하에서 자라도록 최적화되었다.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단 그 뿌리가 땅속 깊이 400~500m까지 뻗어 있으며, 어떤 나무는 그 뿌리가 2km에 달한다고 한다.

히브리명으로 Shittim 나무라고 불리는 조각목의 특징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 수분이 많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을 정도로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다. 또한 나무가 곧게 뻗지 않고, 휘어져 있으며, 잎이 가시로 덮여 있어서 가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선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와 분향단, 떡상, 그리고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 조각목을 이어 붙여야 한다. 그 절정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이루는 널판이다.

총 48장의 널판이 사용되는데, 그 널판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했다. 시내 광야에서 얼마만큼의 조각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정을 거쳐서 이 기구들이 만들어졌을까?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조각목으로 형태를 갖춘 다음, 금으로 도금하는 것이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은 정말 불품없었다.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가공된 나무들을 붙이고, 이어서 기구들을 완성하고 나면 그 모양은 누더기처럼 보였다. 그 누더기 같은 조각목 위에 금이 부어져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널판과 기구들로 다시 태어났다.